

일주문

군중교구 위문품보내기 운동 협약 조계종 군중교구장 정우 스님은 12월 19일 교구 회의실에서 불교TV 구분일 사장, 불교신문 사장 성직 스님과 '위문 품보내기' 운동 공동협약을 맺었다.

아름다운동행 2000만원 기부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12월 19일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농업학교 건립과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기금 2000만원을 기부했다.

갑오년 저녁특별기도 서울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은 2014년 1월 5일부터 갑오년 저녁 특별기도 '여시아문'을 개최한다.

불교상당 산사워크숍 개최 불교상당개발원장 도현 스님은 2014년 1월 4일 목동 국제컨벤션에서 '불성 깨우기'라는 주제로 동계 산사워크숍을 개최한다. (02)737-7378

행복바라미 겨울캠페인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2월 21일 서울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동지 팔죽나눔을 비롯한 행복바라미 겨울 캠페인 행사를 개최한다.

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 임명

신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에 진화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2월 16일 4층 접견실에서 신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직후 자승 스님은 "템플스테이는 불교 중흥의 중요한 초석"이라면서 "오랫동안 봉은사 주지 소임을 맡아 템플스테이에 대해서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업무파악을 서둘러 중무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진화 스님은 "빨리 업무파악을 진행해 문화사업단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종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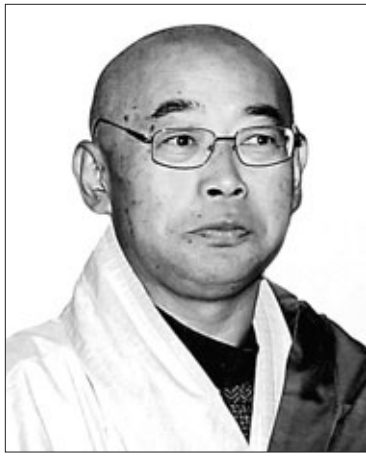
제8회 불교문예작품상 이윤학 시인

현대불교문인협회·계간<불교문예>가 주최하는 제8회 불교문예작품상 수상자로 이윤학 시인의 시 '차에서 자는 인간'이 선정됐다. 이씨는 "이번 수상은 나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었다. 앞으로 기다림과 견딤으로 시를 읊기라는 채찍과 격려가 담긴 상"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윤학 시인은 199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된 이후 서정적 작품으로 시단의 중견 시인으로 주목받아왔다. 당선 작가에게는 상금 3백만원이 주어졌다. 정혜숙 기자

“활동가들 돕고 싶어 시작했어요”

불교활동가 지원 10회 회향한 ‘동출 스님’

동출 스님(설법연구원장)이 지원하는 제 10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 및 회향식이 12월 19일 종로구 수송동 열린선원에서 열렸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곳에서 포교의 원력으로 힘쓰고 있는 불교활동가들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이상은 올해 사단법인 한국 뇌성마비복지회 최명숙 씨와 '네팔 불자구름 모임'과 '재한중머인연대' 각 세 팀에게 돌아갔다. 2001년 불교활동가상을 제정 10회 동안 이끌며 총 27명에게 지원금을 전달하며 회향을 맞은 스님을 만났다. "10년을 발원하고 지원금 전달을 이어왔습니다. 중간에 신장수술 급성 간염 등 건강상의 문제와 종회의원 등을 지내면서 3회 정도를 쉬기도 했는데 올해로 10회를 맞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은사 스님이신 성운 스님과 도반 스님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항상 불교가 재가불자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님은 문화 복지 국제구호



교계 활동가 격려하고자 제정 27명에게 총 5400만원 전달

이주민 단체 등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너무나 고마워 상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제1회 신대현 사찰문화연구원, 신회권 불교포커스 대표, 강제숙(평화시민연대, 원폭관련) 등을 시작으로 올해 수상자까지 사회 곳곳에서 자비의 정신을 펼치고 있는 이들을 선정 총 27명에게

총 5400만원이 지원됐다. 10년 동안 더 챙기고 싶은 활동가들이 많았지만 모두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스님은 말한다. "인연 닿는 대로 추천도 받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가들을 발굴해 지원금을 드리다 보니 못 챙긴 분들이 많아요. 특히 암울한 시기에 활동하며 한국민중불교를 이끌었던 민불련 출신 자녀분들에게 장학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숙제로 남을 거 같습니다." 스님은 10회로 상을 회향하지만 앞으로 도 활동가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올해로 회향을 하지만 앞으로 기회가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라도 도울 생각입니다. 앞으로 기회를 봐서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회향식을 겸한 시상식 자리에는 불교계 활동가 및 단체 관계자들 40여 명이 참여해 스님의 10년 불사를 축하해주었다. 또한 민중불교동지회에서 스님의 뜻을 이어 매년 1명 이상의 활동가를 정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정혜숙 기자

“동문 화합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동국대 총동림동문회 신임 회장 무문 스님

“동문회의 일차적인 역할은 동문간의 친목 도모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문회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불교적 이념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림동문회 신임 회장으로 무문 스님이 취임했다. 12월 18일 동국대 상록원에서 열린 제10·11대 회장 이·취임식에서 무문 스님은 “동문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최선을 다해 회장 소임을 보겠다”고 밝혔다. 무문 스님은 1971년 부산 범어사로 출

가해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으며 해인사, 통도사, 범주사, 불국사 등에서 정진했다. 2005년 2월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했으며, 현재 서울 용산 보광사 주지로 있다. 이날 무문 스님은 장학사업을 비롯해 사회봉사, 성지순례 등 다양한 동문회 차원의 활동을 다짐했다. 스님은 “그 무엇보다 동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며 “산이 크고 높다고 해도 울창한 숲이 없다면 명성이 될 수 없듯 동림동문회 동문들의 참여를 이끌어 위해 직접 찾아다니며 화합에 앞장서



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임회장 학명 스님의 이임식도 진행됐다. 학명 스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소임을 잘 마무리하게 됐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총동림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퇴임사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교류로 한중 교류 활성화 시키자”

중 외교 싱크탱크 한팡밍 주석, 동국대에서 강조

중국 외교 전문가가 불교교류를 통한 양국 우호 증진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한팡밍 차하얼(察哈爾)학회 주석(사진)은 12월 18일 열린 동국대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중국 제1호 비영리 국제관계 전문기관인 차하얼학회 수장을 맡고 있는 한 주석은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이자 철학이학회를 창립해 공공

외교에 앞장서고 있는 정치 외교 국제관계 전문가다. 한 주석은 이날 동국대로부터 지난 9월 차하얼학회가 소장 중인 중화대장경 티베트판 전권을 동국대에 기증한 공로로 명예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한 주석은 먼저 중화대장경 기증 등 한중 불교교류가 한국과 중국 양국이 1000년 이 넘게 진행해 온 외교의 한 방식임을 설



명했다. 한 주석은 “현재 조계종과 추진하고 있는 하복성 승덕사 사찰복원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장경각의 경우 한국식 사찰건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주석 또 “티베트대장경 연구를 위한 후원을 시작하고 한국 대학생들의 중국 유학 및 학술교류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림 스님, 동국대에 23억원 쾌척



부산 해림사 동림 스님은 12월 20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총장 이계영)가 경주 코모도호텔 반월성홀에서 개최한 '2013 동국대 경주캠퍼스 후원인을 위한 감사의 밤'에서 발전기금으로 23억원 상당의 토지를 쾌척했다. 이날 행사에서 해림사 회주 동림 스님은 시가 약 23억원 상당의 부산 기장지역 토지를 기부했다. 동림 스님은 “동국대 이사장 정권 스님과 이계영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이 추구하는 불교인재양성의 큰 뜻에 동참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동국대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학인스님들에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동림 스님은 1940년 부산 무정리에서 출생해 16세에 선암사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3년 동국대 승학과 1기생으로 입학했다. 1980년 부산 선암사 주지를 역임하고 1988년부터 해림사에 회주로 주석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애기꾼, <북한산 꼭지> 출간



불교사회적기업 애기꾼(대표 남지심)이 12월 17일 신간 <북한산 꼭지>를 펴냈다. 불교문학창작교육원 과정을 거친 9명의 작가들이 북한산 봉우리 27개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재구성했다. 남지심 대표와 애기꾼 회원들이 출간을 기념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 기사 22면 정혜숙 기자

봉은사, ‘동지(冬至)’ 희망나눔행사

서울 봉은사(주지 원학)는 동짓날을 맞이해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희망을 나누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봉은사는 '동지기도'와 함께 새해 소원과 다짐을 적는 '새해맞이 소원지 쓰기' 행사를 시작으로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기금 마련을 위한 희망나눔 저금통을 경내에 비치해 후원금을 모았다. 봉은사는 후원계좌(신한은행 140-005-948791 / 대한불교 조계종)를 통해 직접 후원금도 받고 있다. 성금은 12월 31일까지 모금해 (재)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필리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2일 동짓날에는 '동지법회'와 함께 사찰 곳곳에서 '동지팔죽 나누기' 행사가 열렸다. (02)3218-4836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 경고문에 대한 성명서

「(사)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세계불교법왕청」 주최 세계평화와 나라안정기원 세계불교 최고지도자대회 2013년 12월 27일 오전10시 여의도 63빌딩 컨벤션홀에서 정상개회 됩니다.

우리 단체는 귀 단체나 목탁스님에게 허락을 받고 법회를 열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단체가 아님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며 귀 단체가 설립한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이 불교적 행사에 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진 단체가 아니라 하는 것을 자각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이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449번지에 그 주소를 둔 국제선불교조계종 대표로서 우리단체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이하 단체의 단체장입니다. 귀하는 우리단체에 가입한 후 탈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였다 하여서 전 세계의 불교를 관할 할 수 없는 것처럼 한국불교도 귀하가 설립한 단체를 내세워 불교의 법회를 막거나 허락하거나 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아울러 동 행사를 막거나 이에 관한 동 행사를 이행 할 시에는 헌법 전문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 진행 할 시는 귀하와 동일한 방법으로 형법 제 158조에 의지하여 불교법이 아닌 사회법에 의거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행사를 진행 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현재 세계불교법왕청유지재단 세계불교종도법왕청 월드불교법왕청등의 단체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불교법왕청은 1992년 외무부에 이미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우리단체 (사)세계불교법왕청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제기본법 13조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거한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126082-99441로 국제청으로부터 발급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모체가 되는 단체 사단법인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는 2012년 3월 2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 2012-33호로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을 허가받은 단체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단체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사)세계불교법왕청은 귀하가 주장하는 귀 단체 사단법인 세계불교법왕청으로부터 종교 활동에 대한 허락을 득할 사유가 없으므로 귀하의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불교도 앞에 <범망경보 살계포살분>을 바탕으로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사부대중 앞에 진정으로 참회 정진 하시기 바랍니다.

